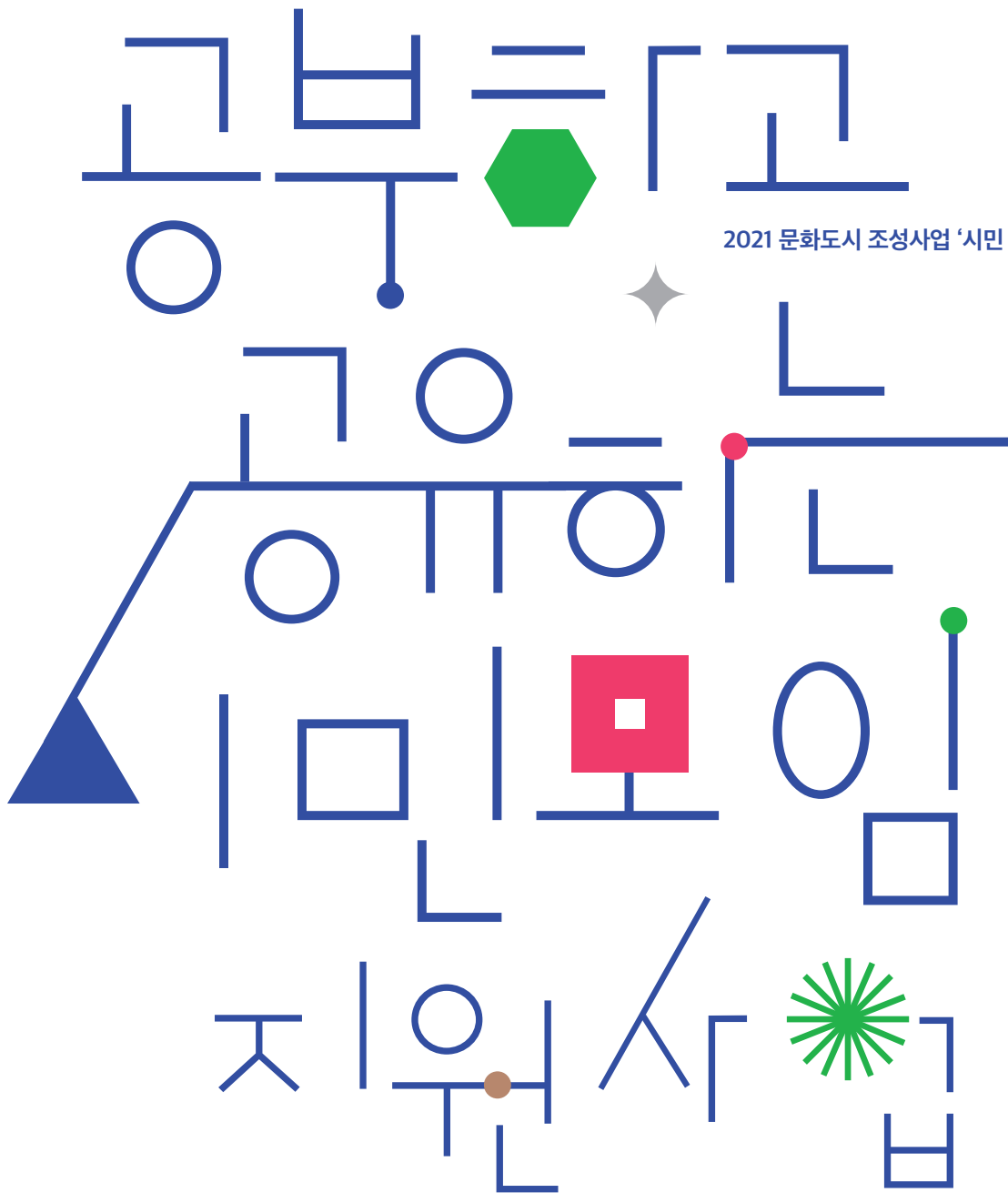




2021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민 R&D'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GYEO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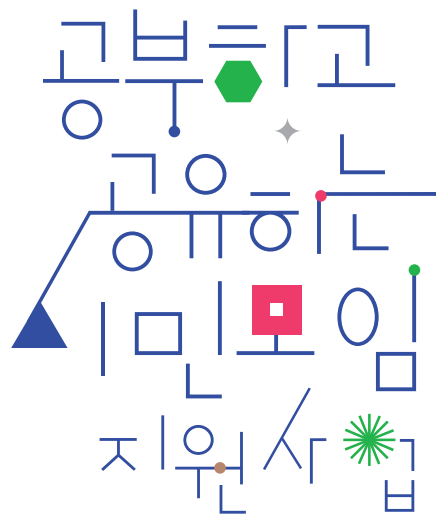


김해시

김해문화재단
Gimhae Cultural Foundation



GIMHAE CULTURE
CITY
문화도시김해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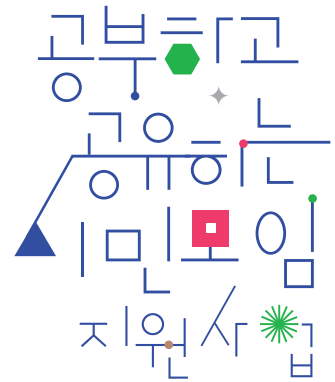
사업소개	06
사업개요	06
참여대상	07
추진방향	08
추진과정	08

취미나눔모임

엄마들의 힐링 수다	09
나비행(나로 비롯한 행복)	16
김해수필문학회	21
지구별 아띠	26
대동만세(대동에서 만들기로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임)	37

취미나눔모임 / 도시탐구모임

해반천 식물도감	4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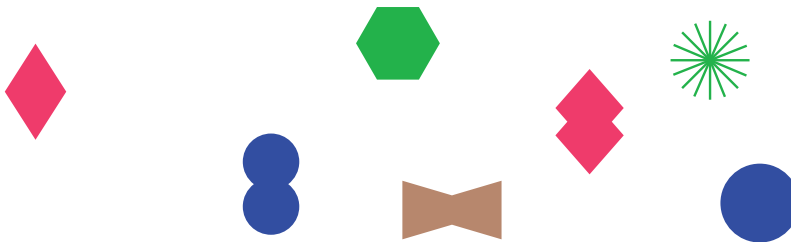


도시탐구모임

김해 동네고양이협회	50
골목답사회	54

지식실행모임

우리말 지킴이	62
배나공(배우고 나누며 공감하는) 연구회	67
반짝이는 숲	73
고래숨	80



사업소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력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민R&D -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주요내용
 - 취미 나눔, 도시탐구, 지식실행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 비용 지원
 - 시민 모임 간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워크숍 활동, 성과 공유회 진행
- 지원규모 : 신청액과 활동내용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
- 선정팀수 : 12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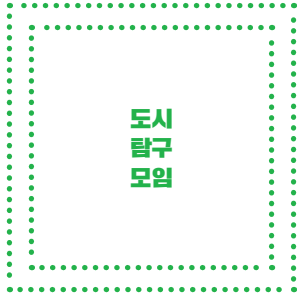
참여대상

취미, 정보, 지식 공유를 통해 공동체 모임을 하고자 하는
김해 시민 누구나(최소 3인 이상, 팀 단위 신청)



개인이 가진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 지원

- 책, 영화, 여행 등 인문적 활동을 공유하는 시민모임
- 반려동물과 함께 만나 관련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모임
- 채식주의자들의 사적인 모임



‘도시의 00’을 주제로 탐구하는 시민모임 지원

- 도시 생태를 탐구하는 시민모임
- 도시의 장소(공간)을 투어하는 모임
- 도시의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



공동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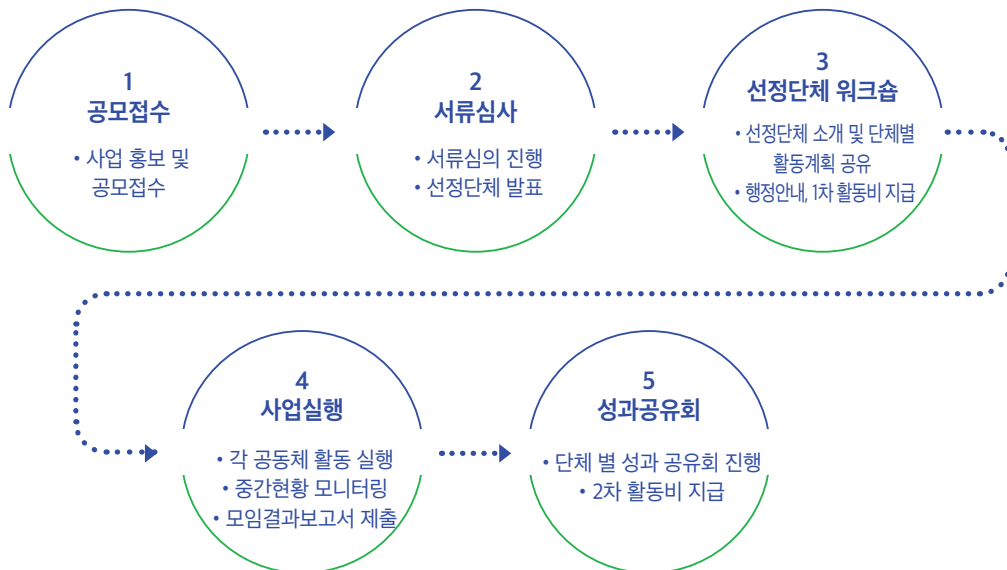
새로운 실행방안을 연구하는 모임 지원

- 문화예술강사들의 교안 개발 연구
- 문화다양성 교육(홍보) 콘텐츠 연구, 개발
- 퍼실리테이터들의 토론 촉진 도구 개발 연구

추진방향

- 활동 층위의 구분
 - 취미활동부터 탐구, 실행의 영역까지 모임 활동의 층위를 구분하여 지원
- 공동체 간의 교류 추진
 - 공동체 모임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임의 확장성과 정보 공유 확산

추진과정



01

취미공유

엄마들의
힐링 수다



엄마들의 힐링 수다

01

취미
공유

활동명	엄마들의 힐링 수다
대표자명	정혜경
모임 인원수	12명

<엄마들의 힐링 수다>는 김해 거주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한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그림책을 읽고, 짝을 이루어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훈련을 하고, 인성교육 및 상담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경우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한 권의 그림책을 주제로 다양한 질문과 그에 따른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엄마들의 힐링 수다

활동 세부 내용

11월 10일

봉황역
엔젤리너스

독서활동 책 : 알사탕(백희나 작가)

마법의 알사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주인공 동동이는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먼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다. 마법의 알사탕이 생긴다면 몇 알이 필요하고,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 의견을 나눠봄



11월 17일

온라인

독서활동 책 : 아름다운 실수(코리나 루이켄 작가)

실수로 떨어트린 감정 물감으로 생긴 점 하나, 실수를 통하여 성장하는 우리. 실수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작은 실수에 좌절하지 말고 넓은 시야에서 자신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해보는 연습을 함



11월 24일

내동 키움도서관

독서활동 책 : 그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시타케 신스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 받기보다는 미래를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야기를 나누어봄



12월 1일

내동 키움도서관

독서활동 책 : 핑(아니 카스티요)

자신이 보내는 신호(핑)에 맞게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퐁) 그것은 그들의 몫
이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지나친 상처나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는 관계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어봄



12월 8일

봉황역
엔젤리너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로버트 베리)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넘치는 것을 억지로 끌어안고 살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포용력을 넘어서는 것을 나눔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음에 관하여 토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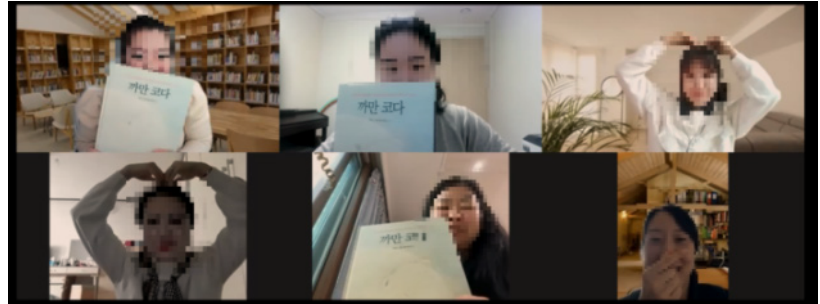


12월 16일

온라인

독서활동 책 : 까만 코다(이루리)

서로의 약점을 감싸 안아주며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 북극곰 모자의 모습을 통해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러한 약점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와 앞으로 힘든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토론을 함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참여자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이어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참여하고자 하는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모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하는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당일에 갑자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빈번히 있었으나, 그런 와중에도 모임에 애착을 가지고 지속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팀원들의 의지가 있었고, 그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며 이 독서 토론 활동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는 육아로 인한 휴직 중이지만, 직업 특성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 관리하여야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잡는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직 후에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면서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임 인원을 늘리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고, 때에 따라서는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임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모임이 더욱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의 제한된 인원 안에서나마 모임 활동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희에게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낍니다.

02

취미공유

나비행
(나로 비롯한 행복)

나비행(나로 비롯한 행복)

02

취미
공유

활동명	독서모임
대표자명	김지인
모임 인원수	6명

학교 도서관에 재직 중인 6명의 사서들이 2019년 3월부터 책 읽기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선정한 책을 읽고 월 1회 모임을 통해 토론하고 학생 독서동아리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통해 자아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서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서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글쓰기 강사를 초빙하여 책 읽기 후 토론뿐만 아니라 서평쓰기, 독후감 쓰기, 나만의 글쓰기 등이 가능하도록 함께 교육받았습니다.

나비행(나로 비롯한 행복)

활동 세부 내용

11월 24일

봉황초등학교
도서관

‘당신을 쓰다’ 글쓰기 수업 1차

‘밝은 밤’(최은영, 문학동네)을 읽고 작품 속 여성서사와 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대(고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누군가를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



12월 1일

봉황초등학교
도서관

‘당신을 쓰다’ 글쓰기 수업 2차

자신의 ‘여성의 삶’ 관점에서 글을 써보고 이야기를 나눔.

남녀, 결혼, 시댁, 자녀 등의 문제에 둘러 싸여 정작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함. 나를 이해하는 과정 중 하나인 글쓰기의 중요성을 느낌.



12월 15일

봉황초등학교
도서관

‘당신을 쓰다’ 글쓰기 수업 3차

‘일상의 불편함을 써보기’ 진행

1. 나이 어린게 무기(죄) - 사회초년생이 겪는 불합리한 대우(열정페이)
2. 백원의 행복 - 동전을 버리는 학생을 보며 돈에 대한 감각의 변화 인식
3. 편리함의 불편함 - 키오스크와 전산화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4. 탈코르셋 - 여성성으로 길러지고 스스로 그에 간혀 답답함
5.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아이도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인정
6. 우회전 -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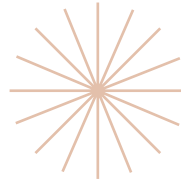


12월 22일 '당신을 쓰다' 글쓰기 수업 4차 진행

봉황초등학교
도서관

12월 29일 '당신을 쓰다' 글쓰기 수업 5차 진행

봉황초등학교
도서관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글쓰기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며 글쓰기로 타인과 소통하고, 글에 담긴 작지만 의미 있는 다짐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웃음과 상처와 더불어 한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글감을 찾아 지속성 있고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가 도서관 사서로 구성된 만큼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 독서동아리 학생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03

취미공유

김해수필문학회



김해수필문학회

03

취미
공유

활동명	수필쓰기 동아리 활동
대표자명	임홍자
모임 인원수	6명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자영업, 화가, 작가, 자원봉사자, 교직원)들이 책을 읽고, 책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문학기행, 연구 등)을 하고 글쓰기로 연계하여 완전한 독서 활동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 장소를 정하여 글(또는 책)의 주제와 관련된 작가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며, 글의 주제와 관련된 글쓰기를 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글쓰기(수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 작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김해수필문학회

활동 세부 내용

- 11월 25일 전문 작가와 함께 작품을 읽고 문학 속에 용해된 시적 분위기 및 수필 문장과 산문정신 탐구(문정희/오빠, 법정/잊을 수 없는 사람, 정성화/버드나무)
- 다어올림
 생활문화센터
- 11월 28일 통영 청마 문학관을 탐방하여 작가 유치환의 생애와 작품세계 및 동시대에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생애를 알아보았다.
- 청마 문학관,
 김춘수 생가 한국의 나폴리 통영에서 성장하고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작품을 관람하며 예술세계를 조사한 자료를 통해 공유했다.



- 12월 9일 전문 작가와 함께 수필 제목 붙이고 글쓰기(까치밥/이상렬, 이종주/손훈영)
-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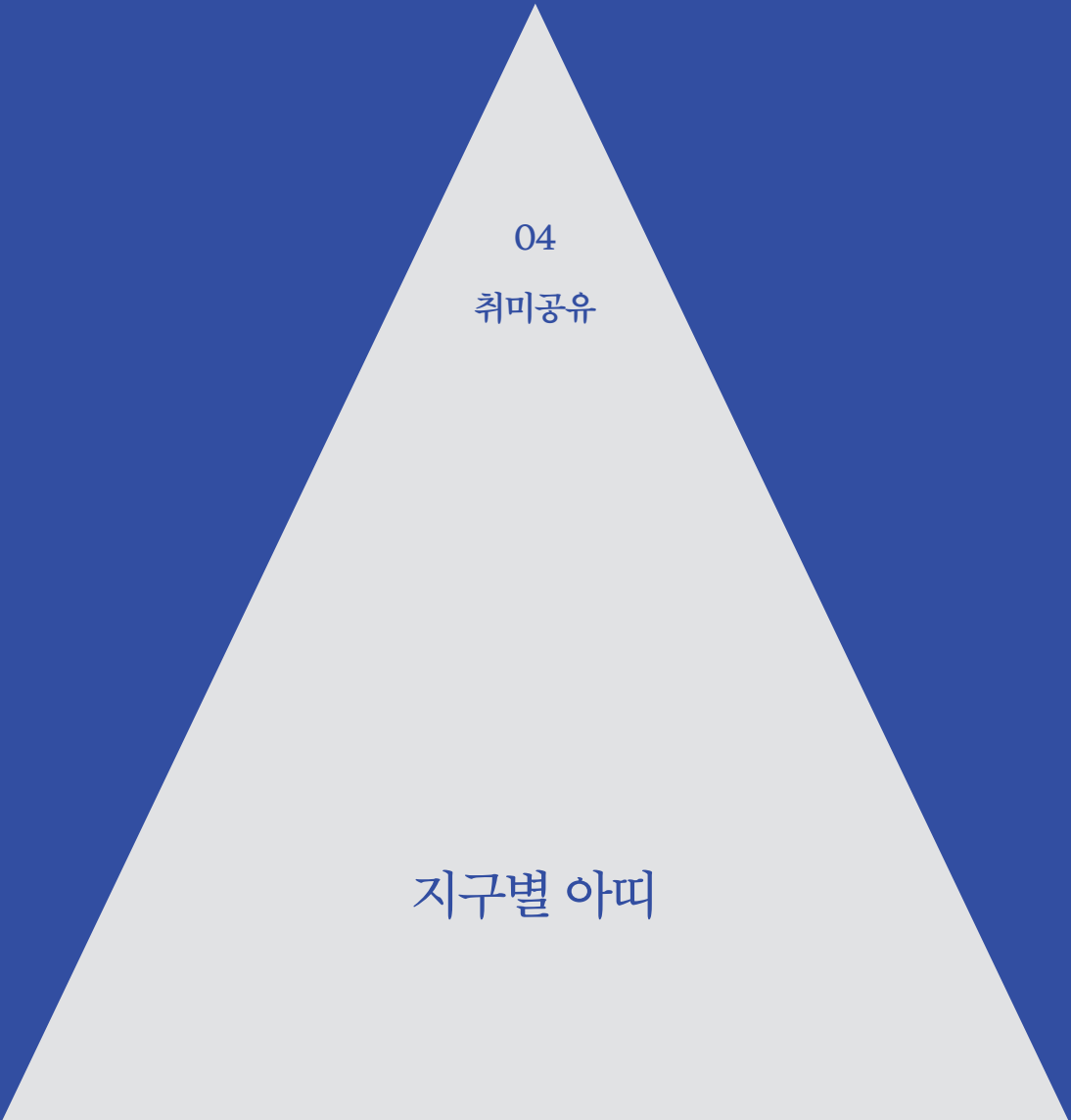
- 12월 16일 가정, 가족 소재의 선택과 한계성 극복(남동생의 시간들/최정애)
-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 12월 23일 수필 주제 중 낯설게 하기(아버지의 바람/김성희, 화초/이향숙)
-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 지원 사업의 실행기간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모임 활동을 이어나가며 작가강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학기행을 통해 많은 정보와 작가세계를 경험하였고, 그동안 몰랐던 예술가들의 삶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서를 엄선하여 깊이 있는 독서토론을 통해 지원사업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 간 깊이 있는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2회기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는 신춘문에 당선작과 회원의 작품을 함께 읽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계획이며 아울러 구입한 독서에 대한 독서 토론의 시간을 함께 가져갈 계획입니다.



04

취미공유

지구별 아띠

지구별 아띠

04

취미
공유

활동명	지구별 아띠
대표자명	여명헌
모임 인원수	6명

2016년에 시작한 인문학 책 모임으로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확장된 사고와 소통으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이로써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는 독립된 객체로서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 역사를 돌아보며 ‘그 옛날 첨단 장비도 없던 시절 허황후가 가락국에 어떻게 뱃길을 찾아왔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해, 김해 역사와 더불어 김해 천문학에 관련한 독서토론과 탐방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김해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누리호 발사는 소수의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응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해와 천문학에 대한 주제를 정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별 아띠

활동 세부 내용

▲ 11월 8일

▲ 카페 원두

지구별 아띠의 첫날. 천문학과 가야역사에 대한 책들로 선정하여 회원 모두에게 책을 배부하였다. 각자 원하는 책을 정하여 맡은 책을 발췌하고, 매번 모임 때마다 발췌자는 그 날의 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김혜경:코스모스, 김혜련:천문학콘서트, 안동숙:이야기로 떠나는 가야역사여행, 여명현:천문학사전, 이미련:철의제국 가야, 정명산:그림속천문학)

김해 천문대에 가는 날과 직접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러 가는 날의 계획을 짰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하는 부담과 한 가지 주제로 깊이있는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 11월 10일

▲ 덕정 Art Kim

독서토론 : 천문학 사전(후타마세 도시후미)

우주와 천체의 원리를 사전 형식으로 그림과 함께 서술되어 있어서 기본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우주와 관련된 기초용어도 함께 살펴보고 우주의 역사와 우주를 연구한 철학자,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어렸을 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었다는 여 대표님의 설명으로 대화를 나누며 깊이 있는 이론 공부가 되었다.



▲ 11월 12일

▲ 덕정 Art Kim

독서토론 :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이영식)/ 발췌자 : 안동숙

이 책을 읽고 난 뒤 돌아켜보니 김해 장유로 이사 온지도 어느새 20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김해는 나고 자란 곳이 아니어서인지 큰 관심과 지식 없이 살았던 것 같다. 수로왕릉 허황후 이야기며 대성동 고분 등 어마어마한 유적들로 서양의 로마 못지 않은 유적이 발굴되는 도시이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율하와 수가리 쪽도 해안 지역으로 일본과 문물을 교환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나왔다니,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번쯤 가보았던 국립김해박물관을 우리 고장에 두고도 정말 이지 말 그대로 나에게 박물관은 그저 박물관이었던 거였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번 천문학과 함께 가야사를 공부하고 나니 김해 역사에 감동과 함께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대와 현대를 교차하면서 역사를 배우고 산책할 수 있는 고장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김해라는 사실이 뿌듯하고, 애항심이 생기게 되는 책이었다.



▲ 11월 16일

▲ 투썸플레이스 퇴산

독서토론 :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이동식)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여행을 발췌한 안동숙 회원님의 질문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한때는 12개나 되었던 가야가 더 큰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 유적지 탐방을 하게 된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은가?’, ‘허황후 관련 유적지인 구지봉 근처에는 왜 점집이 많은 걸까?’ 위와 같은 질문들에 회원들이 나름의 답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었다.



▲ 11월 19일

▲ 김해 천문대

김해 천문대에서 부분월식 행사가 있어 신청하여 보러가게 되었다.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월식은 최대 0.978로 달의 대부분이 가려져 맨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다음 월식은 약 1년 뒤인 2022년 11월 8일로,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의 장관이 펼쳐진다고 한다. 내년에도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이 환상적인 모습에 취해보고 싶다. 더불어 올해 11월, 12월은 같은 날 같은 시간 하늘에서 달, 목성, 토성, 금성을 나란히 볼 수 있는 멋진 날들이다.

아는 것이 자꾸 생기면서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게 된다.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천문대가 있다는 건 행운인 것 같다. 김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천문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많은 김해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참여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 11월 23일

▲ 카페 비올

독서토론 : 철의 제국 가야

회원님들과 질문과 답변으로 토론하여 보았다.

‘김해 김 씨는 현재 성씨 중 가장 많은 인구에 속하는데 국가는 왜 그리 빨리 망했을까?’, ‘가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 11월 25일

▲ 덕정 Art Kim

독서토론 : 천문학 콘서트(이광식)/발취자 : 김혜련

밤하늘에 수놓인 별을 보면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된다. 내게 우주는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곳이다. 알고는 싶으나 특별한 천문학자만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았다. 이번에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 지원하는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에 우리 독서모임이 선정되어 천문학을 주제로 선정하고 ‘천문학 콘서트’를 읽어보게 되었다.



▲ 11월 30일(화)

독서 토론 : 천문학 콘서트(이광식) / 발췌자 : 김혜련

▲ 덕정 Art Kim

회원님들과 질문과 답변으로 토론하여 보았다.

‘우주와 우리 인간의 삶이 과연 연결되어 있을까?’, ‘천문학자들은 왜 천문학자가 되었을까?’

▲ 12월 2일

김해천문대에 가서 가상 별자리를 보고, 천체관측을 진행했다.

▲ 김해 천문대

김해 천문대는 매월 1일, 15일 인터넷 예약으로 체험할 수 있다. 산에 오르는 동안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어 멋진 김해 노을과 야경까지 구경하며 즐거운 시작을 하였다. 김해 천문대는 분성산 정상에 동그란 건물로,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이 앞에서 태어난 것을 형상화한 타원형 모양의 건축물이다. 천체 투영실에서 연구원님의 설명과 함께 둥근 천장이 밤하늘이 되어 눈 앞에서 별자리들을 볼 수 있었다. 별자리와 여러 행성들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난 뒤, 천체관측동으로 이동하여 직접 눈으로 관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 12월 3일

황매산 별 보기, 별자리 찾기

▲ 황매산

김해 천문대 직원 분의 친절한 안내로 보현산으로 별을 보러 가려던 계획을 황매산으로 수정하였다. 야간 산속이라 추울 걸 예상하고 단단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너무 추웠다. 하지만 쏟아지듯 가까이 보이는 별들의 자태에 우리는 잠시 추위를 잊고 목이 아파 더는 볼 수 없을 때까지 밤하늘만 다들 쳐다보았다. 김해 천문대에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직접 별을 보러 온 건 참 잘 짠 계획인 것 같다. 어제의 감흥과 별자리들을 기억하고 보니 더욱 감동적이다. 여 대표님이 준



비해 오신 별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로 배운대로 점을 찍어가며 북극성도 찾고 동서남북 방향을 정하고 나니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백조자리 등 배운 대로 겨울 별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허황후의 배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을 보며 김해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지금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라 회원님들과 함께하니 별자리 공부도 더 잘 되고, 재밌고 행복했다.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 덕분에 내 인생에 큰 추억을 만들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다.

▲ 12월 7일

▲ 투썸플레이스 퇴산

독서토론 : 그림 속 천문학(김선지)/발췌자: 정명선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코로나 19, 지난 4월 2주간의 자가격리 경험은 지금까지의 내 삶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었다.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반보다 더 모자랄 수도 있겠다 싶은 아찔함을 느끼며 더 이상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오던 일을 줄이고 소싯적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을 용기 내어 시작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만큼 시대상황과는 언밸런스하고 미안하게도 요즘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더군다나 우연찮게 좋은 인연으로 책 읽는 소모임에도 함께하게 되면서 평범하기 그지없던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듯하다. 그리기를 배우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림 속 천문학>이라는 책을 담당으로 권유받았는데, 모임 회원들의 해안에 감사할 따름이다. 책 읽는 것을 멀리해 온 나이지만, 그림과 별들 이야기로 가득한 이 책은 어렵지 않고 다음 내용이 기대가 될 만큼 재밌었다. 밤하늘의 별과 화가를 연결하면 고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나에겐 주입식 교육의 결과이다. 하지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산 고흐가 밤하늘의 별들에게서 위안을 얻었다는 건 화가를 모르고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림을 통해 위안을 얻는 나와는 다르게 호기심 많은 천문학자들은 첨단기술로 시간을 거슬러 고흐가 보았을 하늘을 해석하기도 했다. 인간의 관심은 지금도 그림과 하늘을 연결 짓고 있다.

▲ 12월 9일

▲ 투썸플레이스 퇴산

독서토론 : 그림 속 천문학

회원님들과 질문과 답변으로 토론하여 보았다.

‘이 프로젝트 전, 후 천문학에 대해 달라진 생각을 서로 이야기 해보기로 한다’, ‘동서양 작품 각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화가의 작품 활동 중 노안이 왔을 때 영향을 끼친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12월 13일

▲ 율하 카페인

독서토론 : 코스모스(칼세이건)/발췌자: 김혜경

과학의 이해는 우리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과학의 임무는 미지의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지켜내야 하고 탐욕의 인간이 오염시켜 생명체가 살기 힘든 초록별이 되어가는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 아니면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지구 같은 생명별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을 전제한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향유하게 된 공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의심하며 진화의 깃발을 내걸었던 무수한 과학자들과 그 조력자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인류애에서 우러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



▲ 12월 15일

▲ 덕정 Art Kim

활동 소감 나누기

이번 천문학 관련 독서토론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무관심하던 분야에 적극적인 독서활동으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여러권의 책을 읽어 이론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김해 천문대에 직접 가서 천체에 대한 연구원들의 자세한 설명과 밤하늘 별자리 관측 체험을 하면서 실제와 연결하여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회원들 간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이 지구 밖 우주를 탐험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 이야기해보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향후 봄, 여름, 가을 별자리에도 관심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처럼 집중적인 학습 과정이 될 수는 없을 지라도, 천문학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김해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않을 계획이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김해문화도시센터의 지원이 아깝지 않은 알차고 보람있는 모임을 끝낼 수 있어 서로서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다.

05

취미공유

대동만세

(대동에서 만들기로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임)

대동만세(대동에서 만들기로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임)

05

취미
공유

활동명	만세모임의 똑딱똑딱 목공예
대표자명	김보경
모임 인원수	4명

대동에는 알록달록 옷을 입은 과실수와 꽃들,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 붉은 노을의 운치가 있지만, 문화생활의 부족에서 오는 목마름은 해결할 방법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동에는 오래,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인적·물적 자원이 많지만 네트워크 형성의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을 통해 대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내고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취미,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팀원들의 관심과 취미,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대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단순히 만들기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대동의 문화결핍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내어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사회와 나누고, 일부는 재창출의 씨앗으로 삼아 대동을 알리고, 경쟁력을 갖춘 문화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대동만세 (대동에서 만들기로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임)

활동 세부 내용

- 11월 8일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 대동면 복지회관 (공방 섭외, 강사섭외, 현수막 제작 논의, 제작할 공예품 논의)

- 11월 17일 목공예 샘플 제작
- 대동면 복지회관

- 11월 21일 신청자와 함께 목공예 무드등 만들기
- 대동면 복지회관



● 11월 28일

신청자와 함께 목공예 트레이, 캐리어 만들기

● 대동면 복지회관



● 12월 5일

신청자와 함께 목공예 독서대 만들기

● 대동면 복지회관



- 12월 8일
- 대동면 복지회관

목공물 판매 협조 공문 발송, 안내장 발송, 판매 물품 검수 및 목록표 만들기, 현수막과 배너 제작 및 부착



- 12월 10일
- 대동농협 앞

목공물 판매(1일차)



- 12월 11일
- 대동 국공립 어린이집 앞

목공물 판매(2일차)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 박주현** 여러분들의 숨은 목공 실력에 놀랐습니다. 농촌에 문화생활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기회가 자주 있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기회를 찾고, 기회를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 김보경** 기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사님께 4작품 만드는 동안 고생 하였고, 감사드립니다. 회계를 맡고 계신 정상옥님 감사합니다. 박주현 이장님 총괄 맡아 잘 지휘해주시고,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리님 홍보 맡아서 소통하고 구성원들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원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재미있다고 해주시고, 다음에 또 함께하자고 하니 좋습니다. 첫 기획이었는데 인상적이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해요”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만세 구성원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정상옥** 함께 만들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 기회를 마련해 봅시다.
- 주일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고, 재능 기부가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의 만세 모임의 활동을 응원하며, 또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이규리** 다들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뿌듯하고, 저 역시 만들면서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 김보경 (대표)** 끝으로 이런 기회를 준 김해문화도시센터, 업무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교통이 불편한 김해 끝자락 주말까지 반납하고 모니터링 와주신 신유진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업 문의를 했을 때 좋은 일을 한다며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겠으니 강사료 보태 질 좋은 작품 만들면 좋겠다며 선뜻 달려와 수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수업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묵묵히 해주신 마을교사 주일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꼼꼼한 작업으로 작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나무사랑공방 이동훈 공방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일, 내 일 따지지 않고 형편 되는 사람이 앞장서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구성원들과 새로운 만세 모임의 식구들도 고맙습니다. 전시 및 판매 날 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면장님, 조합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기관장들과 지역주민, 지인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글로 옮기면서 우리는 목공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배우고 나누고 소통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소박한 시골에서 자라 교육의 기회도 적고 누리는 것도 적다 여겨졌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6

취미공유 / 도시탐구

해반천 식물도감

해반천 식물도감

06

취미공유
도시탐구

활동명	해반천 식물도감
대표자명	김영자
모임 인원수	12명

저희는 김해에 살며, 자연을 좋아하고 지켜나가는데 관심이 많고, 아름다운 자연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18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연과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함께 그림도 배우고 친목을 도모하며, 해반천의 소중함도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 활동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해반천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관찰하고, 우리 김해의 자연과 건강한 공동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모임 활동의 주제로 하였습니다. 해반천의 계절에 따라 서식하는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보태니컬 아트에 접목하여 자신의 해반천 식물 화첩을 만들고 작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학습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계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도시 공동체 문화와 예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해반천 식물도감

활동 세부 내용

11월 20일

해반천 산책, 식물 사진 찍기 및 추후 모임 일정 논의

해반천



12월 4일

해반천 산책, 식물 사진 찍기 및 추후 모임 일정 논의

해반천, 대동 상가



12월 10일

식물 스케치, 채색(수채 색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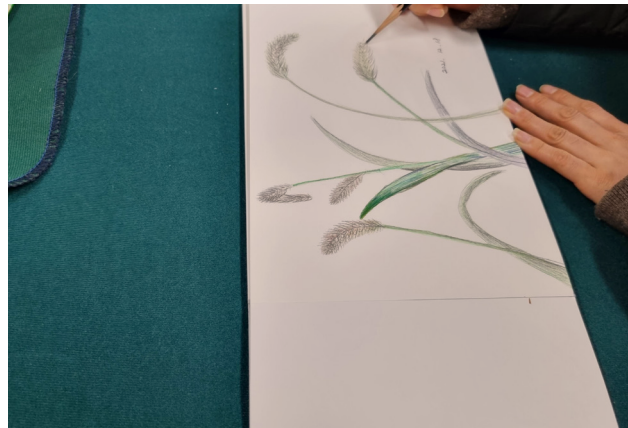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12월 18일

식물 스케치, 채색(수채 색연필, 수채물감)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1월 8일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 1월 15일

식물 스케치, 채색하기(수채물감, 민화물감)

❖ 대동상가



❖ 1월 18일

해반천 산책, 식물 사진 찍기, 그림그리기

❖ 해반천,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 1월 22일

스케치 및 채색하기

❖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 1월 25일

그림 그리기, 화첩 완성하기, 전시 계획 논의

❖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 2월 12일

작품 전시, 감상 및 합평

❖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2월 9일~15일

해반천 산책 화첩 완성 및 작품 전시회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김영자(모임 대표)

<해반천 식물도감>은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나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처음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으나, 함께여서 쉽고 재미있기까지 했습니다. 해반천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반천을 산책하며 식물들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날은 학창시절 소풍 날처럼 많이 웃고 즐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그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의 중요함을 되새기게 하고, 소중하게 함께 지켜 나가야 하는 공공의 목표임을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식물그림을 그릴 때 쑥스러워하던 모습은 간데 없고, 모임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묘사와 표현력이 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그림에 흐뭇해지는 모습에서 함께 취미와 생각을 공유하여 공동체 문화와 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작은 장을 열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11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해반천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그리고, 더러는 문인의 향기가 짙게 배인 멋진 글도 적어 마무리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작품을 ‘김해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에 전시하였는데, 작품 디스플레이와 오프닝, 작품 감상 및 합평 그리고 마지막 철거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시장 작품 배치 아이디어를 내고, 못질을 하고 액자를 걸었으며, 조명을 맞추고 활동사진들도 걸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생각을 공유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정심, <해반천 식물도감에 참여하고>

해반천은 거북내라는 옛 이름을 가지고 있다. 김해 시내를 중심으로 흘러 화목동의 조만강과 합류한다. 김해에 사는 사람이라면 해반천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걸어보지 않은 이가 없다. 허나, 그렇게 여러 번 또는 매일 걷고 뛰는 해반천이라도 거기에 자생하는 식물을 눈여겨보는 이는 많이 없을 것이다. 늘 보는 풍경이고, 늘 있는 풀이고, 나무이고, 흐르는 물이라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을 자연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시인의 말처럼 해반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사계절 피는 꽃들이 다르고 자생하는 식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의 해반천 식물도감에 참여하고, 잃어버린 친구를 찾은 것 같았다. 알기는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식물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모양을 더 세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나서 서툴지만 그림을 그렸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식물들.

내가 너를 불러주었으므로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허모영, <해반천 식물도감-줍어지는 샘물도감>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던 해반천 식물들을 잎맥 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초입에 시작한 <해반천 식물도감>은 우리들에게 순수로 돌아가게 하는 ‘줍어지는 샘물도감’이었습니다. 모두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보던 실력 외에 대부분 초보였지만 너무 진지하고 재밌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듯 밤새워 그림을 그려오는 열성, 전시장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에 덧칠을 하며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 동심으로 돌아간 아이와 같이 진지하고 신나보였습니다. 모두의 감성에 화가의 끼가 숨어있는 것 같아 놀라웠고, 멋진 작품은 아니지만 각자의 정성이 담긴 첫 그림 작품이라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전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해주신 김영자 선생님의 길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뜨거운 열정 덕분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홍은실, <해반천 식물도감을 마치면서>

지난 11월부터 <해반천 식물도감>을 시작하면서 모임 구성원들과 해반천을 함께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맡고, 물길을 따라서 펼쳐진 식물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아는 식물이 몇 가지 되지도 않았고, 알고 있던 식물들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 관찰하고 사진으로 담으려고 노력하던데에 그쳤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반천 순회를 하고 그렸던 그림이 떠오릅니다. 역사의 고운 털들을 자세히 그렸던 그림이 지금 보니 어색합니다. 그림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식물을 관찰하고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의 형태를 스케치하고 다시 물감과 색연필로 채색을 거듭하면서 식물도감이 완성되어가는 보람을 깊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들을 전시하는 기회를 통해서 해반천 식물에 대한 애정과 감동이 한층 더 깊어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참 소중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주신 김영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반천의 계절의 변화가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식물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경애 <해반천 식물도감을 마치며>

해반천에 있는 모든 꽃들과 식물들에게 감사하다.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 특히 자연을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기회가 있어 참 좋았다.

그 자연이 주는 고마움... 늘 지나치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감을 안다. 그래서 이번 활동들이 나에게서 참 고맙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아마도 식물명상의 시간이 아니었나 한다. 그림은 서툴렀지만 오로지 그 시간은 그것만 바라보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바란다. 오래오래 나와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활동을 하게 해주신 선생님도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란다.

성혜경 <해반천 식물도감 전시회 후기>

해반천은 가벼이 산책하던 곳이었는데 식물도감 전시회에 참석하면서 느리게 걷기 시작했다. 무심하던 식물과 일일이 눈 맞추어 잡초라 여기던 식물의 생김새와 이름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다.

김미정 <해반천 식물도감 소감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화가이신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니 기대가 되어 마음이 설레었다. 갈대가 바람에 날릴 때 처음 만나 겨울이 깊었다. 그 사이 우리들은 이미 지고 없는 풀과 꽃을 그리며, 해반천에 살고 있는 식물들과 사랑에 빠졌다. 곧 봄이다. 내가 오래 들여다보며 색을 입혔던 생명들과 반가운 만남을 기다린다. 해반천 식물도감에 참여하면서 갖가지 생명들로 넘치는 해반천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여채원 <해반천 식물도감 전시>

즐작이 함께 하니 멋진 종합 선물세트~~

조인혜 <해반천 식물도감 참여 소감문>

색연필을 잡아보고 물감을 칠해보고, 잠시 옛날로 돌아간 듯~ 내 마음까지 채색되어갔다. 자세히 보고서 더 사랑스럽게 해반천 식물들을 바라보게 된다.

07

도시탐구

김해

동네고양이협회

김해 동네고양이협회

07
도시
탐구

활동명 김해 길고양이 인식개선 강연
대표자명 장행영
모임 인원수 30명 내외



김해 동네고양이협회는 김해의 길고양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돌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및 도시생태계에서 공존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하여 TNR 토론 모임을 진행하고, 길고양이 사진작가로 유명한 김하연 작가님을 모시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길고양이와 사람과의 공존, 공생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해 동네고양이협회

활동 세부 내용

11월 13일

봉리단길
핸드밀 카페

1. TNR에 대한 논의

김해시 TNR이 해마다 12월 중순에 마무리됨에 따라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함

2. 길고양이와의 공존 도서 중 TNR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봄

3. '모닝노크 똑똑 주차알림판' 제작하여 나눔



12월 11일

예담

1. 김하연 작가의 <길고양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강연

길고양이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길고양이 문제는 사람 간의 문제이다. 사람 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공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해시 길고양이 정책과 TNR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과 규정에 잘 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길고양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캣 돌보미 분들이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사람과의 공존, 공생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는 TNR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의 관리를 사람들이 해주어야 한다.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길고양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김해문화도시센터의 지원사업으로 김하연 작가님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김해시 길고양이 정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해시도 타시도에 앞서가는 길고양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길고양이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을 일으키는 쥐의 번식을 억제하고 도시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발정기 때의 울음소리 등은 TNR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쓰레기 봉지를 뜯는 문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청결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김해 동네고양이협회는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통해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08

도시탐구



골목답사회

골목답사회

08

도시
탐구



활동명 김해의 공간 탐구
대표자명 김금수
모임 인원수 11명

우리 모임은 동네 책방 <생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 성별, 직업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거주하고,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하고,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여름의 끝자락에 삼랑진에 위치한 명례성당에 소풍을 갔더랬습니다. 성당은 봉화마을 묘역을 설계한 승효상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평화로운 시골마을에 위압감을 주지 않고 살포시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의 모임에서 구성원 중의 한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에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풍부한 공간이 참 많지 않느냐, 제대로 공부하고 답사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지도 않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 김해에 의미가 있는 공간을 찾고 관련 책과 자료도 찾아 공부하고 답사하는 모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골목답사회

활동 세부 내용

☀ 11월 19일

도서 <기적의 도서관>, <감응의 건축>을 읽고 소감나누기

☀ 동네책방
생의 한가운데

건축가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기
김해의 의미있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 12월 3일
- ☀ 동네책방
생의 한가운데

도서 <노무현의 무덤>, <철학으로 읽는 옛집>을 읽고 소감나누기
이전 서원의 역할, 현재 남아 있는 서원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죽은자를 기념하는 다른 장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 12월 10일
- ☀ 기적의 도서관

김해 기적의 도서관 탐방,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감상, 주위 공원 둘러보기
기적의 도서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정기용 건축가가 추구했던 건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도서관 주위 어슬렁거리기



☀ 12월 11일

클레이아크 미술관의 건립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클레이아크 미술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김해의 도자기 역사, 분청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불의 여신 백파선>을 읽고 소감 나누기, 최초의 여성 사기장 ‘백파선’의 일대기
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12월 11일

산해정 뒷마루에 앉아 햇볕 쬘기

☀ 산해정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김해에 남아 있는 서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12월 12일

☀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답사

묘역에 담긴 여러 상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노무현 대통령 사저의 건축과정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12월 12일

☀ 화포천
생태습지공원

화포천 생태공원 걷기

화포천에 사는 여러 동식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화포천의 마스코트 황새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기

우리 지역의 습지가 주는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12월 12일

책을 읽고 공간의 답사한 소감 나누기

❁ 마을공방 개락당

도자기 만들기 1차



❁ 12월 15일

답사 장소 외 김해의 의미 있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마을공방 개락당

(은하사, 장유암, 분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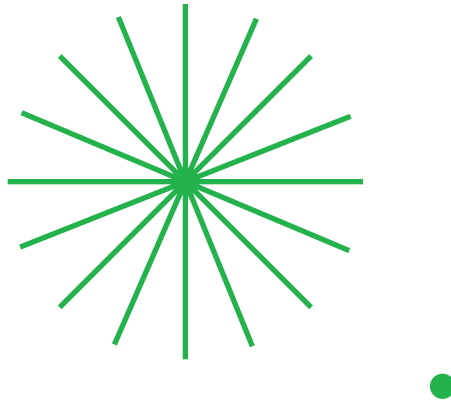
도자기 만들기 2차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모임의 구성원들 중에는 김해에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타지에서 살다가 김해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해의 명소에 대해 알게 되어 의미가 있었고, 답사 공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그곳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간의 의미를 찾고 공부하는 시간도 소중했지만, 무엇보다 그 공간을 천천히 걷고, 앉아 햇볕을 쬐고, 사람들과 두런두런 공감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김해문화도시센터와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답사한 공간 외에 김해에 의미 있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 이번 모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가치가 있으나 아직 모르고 있는 공간,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 훼손되어 가는 공간 등을 찾고 그곳을 기억하고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09

지식실행

우리말 지킴이

우리말 지킴이

09
지식
실행

활동명	슬기로운 우리말 탐구
대표자명	서설화
모임 인원수	30명 내외

우리말 지킴이는 김해시에서 같은 직장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김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리말 바로쓰기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민으로서 우리말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김해시가 타 시도보다 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말 지킴이 활동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한국실용글쓰기(공공언어 이해) 공부 모임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김해 곳곳에 남발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외래어 표기 현황 현장조사 및 김해시 축제 참관, 김해 한글 박물관 체험 등 남발 된 공공언어 외래어 표기를 우리말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말 지킴이

활동 세부 내용

- ◆ 11월 4일 김해시 대표 관광지인 연지공원 일대 외래어 간판 조사
- ◆ 연지공원

- ◆ 11월 6일 김해 지역을 대표하는 도자체험관으로 아름다운 건물인 김해 클레이아크 방문,
◆ 클레이아크 체험, 외래어 남용 간판 조사
 미술관



◆ 11월 20일

김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박물관 김해가야테마파크 현장 탐방 및 외래어 조사

◆ 김해가야테마파크

◆ 11월 30일

공공언어 남용 현장탐방 결과 공유 및 간담회

◆ 김해 경원고
행정실



◆ 12월 9일

1. 11월 9일 개관한 김해한글박물관 현장 체험. 한글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한씨
이윤재, 눈피 허웅 선생의 업적을 공유하고 한글 문화유산이 보존된 전시공간을
체험함.

◆ 김해한글박물관,
김해 경원고 행정실

2. 공공언어 남용 현장탐방 결과 사례 발표 및 대안 공유 간담회(김해문화도시센
터 모니터링 방문)



◆ 12월 13일 김해문화의전당 일대 흡연실 등 외래어 남용 조사

◆ 김해문화의전당

◆ 12월 17일 전문강사 초빙 연수 및 현장 탐방 조사 사례 발표, 대안 제시

◆ 김해경원고
세미나실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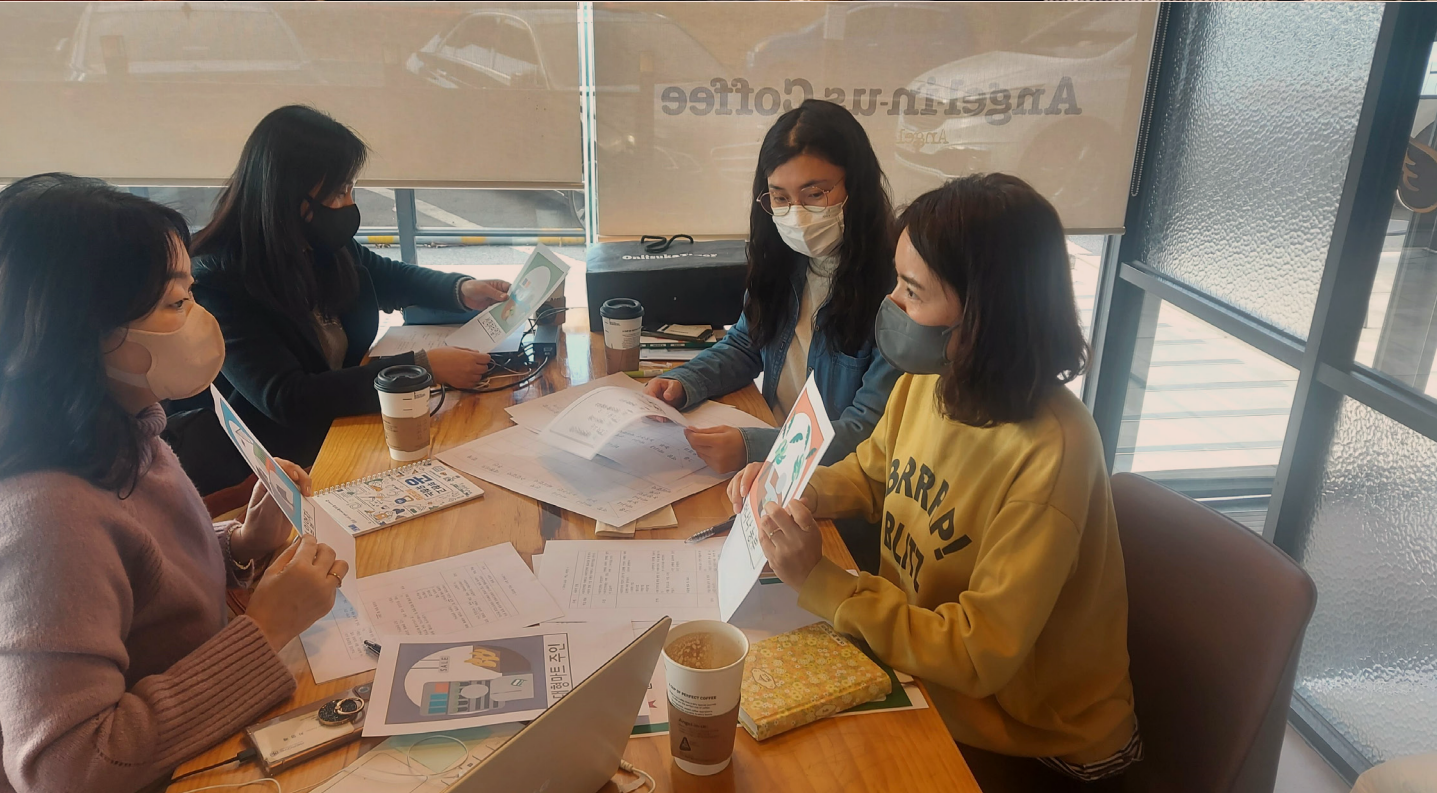
우리말 바로 쓰기 및 지킴이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김해시 곳곳에 오·남용되고 있는 공공언어 현장 탐방과 조사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김해시가 타 시도보다 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말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공유하는 우리말 지킴이 활동 모임 공부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실용글쓰기 모임 공부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김해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0

지식실행



배나공(배우고 나누며 공감하는)
연구회



배나공(배우고 나누며 공감하는) 연구회

10

지식실행

활동명	김해시청소년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 콘텐츠 교육
대표자명	김수미
모임 인원수	4명

저희는 2019년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사회적경제전문가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강사님들 중 4명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성 과정 이후 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꾸준히 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왔고, 김해지역의 많은 초중고 학생들과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현재의 콘텐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무언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팀원 모두는 다양한 관련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 것이 아니다보니 우리의 방향성에 맞지 않고 김해의 특성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내용들에 다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우리만의 <청소년사회적경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교육은 직접 초청하여 듣고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해당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나공(배우고 나누며 공감하는) 연구회

활동 세부 내용

- 11월 6일 예산 수정 및 공동 도서 선정
 <어서와, 사회적 경제는 처음이지>
- 카페 비엔도 각자 연구할 수업 주제 선정
 - ① 이현주 : 사회적경제 이론
 - ② 장영미 : 의사소통, 협동
 - ③ 김수미 : 님비 핏피
 - ④ 차영례 : 공정무역



- 11월 14일 강의안 개발 및 교구 제작을 위한 보드게임 특강 진행
- 융합독서코칭연구소

■ 11월 20일

■ 봉황역 엔제리너스

1. 연구 주제 발표

① 이현주 : 사회적경제 이론

- 빙고 게임을 통한 내용 복습
- 현재 있는 이론 내용 재배열

② 김수미 : 남비 찜피

- 경매 게임을 통해 불편한 건물과 유익 건물 획득하여
주제(도시재생, 문화, 기후)에 맞는 도시 그려보기

2. 새로 구성한 커리큘럼 진행 후기 공유

1,2교시 - 미덕으로 자기 소개, 소통

3,4교시 - 자신을 물건으로 표현하기, 정글에서 살아남기

5,6교시 - 사회적 기업의 종류와 해당 기업 소개, 기업 만들기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게 낫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

■ 12월 4일

■ 봉황역 엔제리너스

1. 연구 주제 발표

① 차영례 : 공정무역 - 바나나게임(역할극)

바나나 생산 농부, 농장주, 선적처리업자, 수입업자, 대형마트주인 조합이 되어 각자 조합의 이득과 상대 조합 이득을 생각해본다.

② 장영미 : 의사소통, 협동

- 정글, 사막에서 살아남기 워크지 제작
- 교육 계획안 공유

2. 향후 개설 될 강좌 시안 확인 : 장소 섭외 확인, 4차시 주제선정



■ 12월 14일

■ 온라인

1. 시민 R&D 지원 사업 - 결과 보고서 작성



2. 공동 구매 도서 내용 공유 - 「어서와, 사회적 경제는 처음이지」

3. 22년 1월 특강 확정 - 불암동아동센터 4주 진행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모임은 이미 한 달에 1~2회 진행 되고는 있었지만 추진력 없이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금전적 지원이 되니 활용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교구를 준비하고 수업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어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준비한 과정으로 22년 1월 4주간 불암동아동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 될지 등 피드백을 받을 수업의 기회까지 생겨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도서관도 계속 섭외 중입니다.

2022년에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전 모임을 이어가기로 하였고 사적 모임에서 협회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협회라는 틀을 갖추어 보다 체계적인 모임이 되도록 2022년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라는 생소한 분야를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지식실행



반짝이는 숲



반짝이는 숲

11
지식실행

활동명	환경교육프로그램기획 자료집발간
대표자명	황윤도
모임 인원수	4명

2019년부터 환경교육을 하는 강사님들이 학교 환경수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여 환경 도서와 관련 자료집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한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으로 환경에 관련된 교재와 교과연계 교재들이 많이 제작·보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재들 중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 같은 선생님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의 목적은 기후위기 시대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환경교육을 이론으로 전달하는 일회성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지역에 맞는 교과연계 프로젝트 수업 안을 개발, 기획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총6회차, 중학생은 총17회 프로젝트 수업 운영계획, 운영 안을 생태/환경 부문으로 개발하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환경교육에 실질적인 방안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반짝이는 숲

활동 세부 내용

- ◆ 11월 17일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김해농업기술센터 방문, 아열대 과일 재배 관련 답사, 기후 변화를 준비하는 방법(농업접목) 등 답사
- ◆ 11월 23일 환경프로그램 자료 취합 정리, 논문 및 자료집 공유, 앞으로의 모임 활동 계획 설정, 답사 일정짜기,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생각 나누기, 환경 이슈 공유
- ◆ 숲으로 된 성벽



- ◆ 11월 25일
- ◆ 화포천 습지

김해를 대표하는 생태적 환경 습지인 화포천 습지 답사
활동내용과 환경도서를 공유함



- ◆ 11월 30일
- ◆ 장유 이디야

환경프로그램 자료 정리 및 프로그램 기획, 2021년 환경이슈 공유



- ◆ 12월 1일
- ◆ 백두대간 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 현지견학 및 프로그램 적용, 기획회의



◆ 12월 8일

초등학교 1,2학년/3,4학년/5,6학년/ 중학교 프로그램 정리 및 담당자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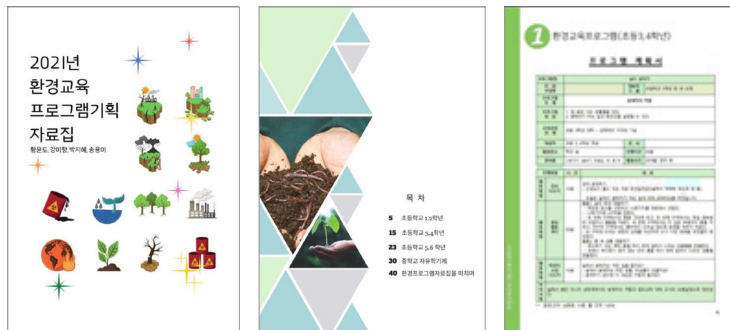
◆ 숲으로 된 성벽



◆ 12월 10일

진주수목원 답사 및 프로그램 적용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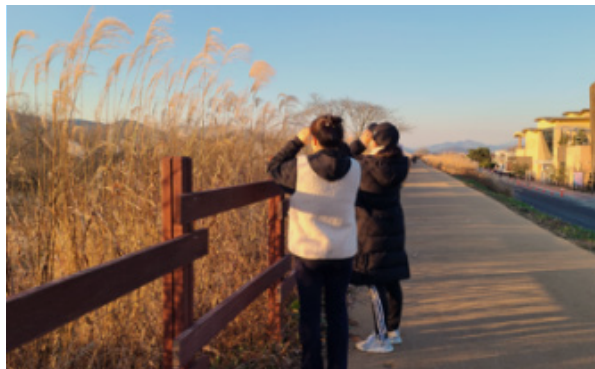
◆ 진주 수목원



◆ 12월 14일

주남저수지 활동 견학, 프로그램 2차 정리, 겨울 철새 관찰

◆ 주남저수지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생태교육을 해오면서, 그 고민들 속에 저희가 있는 이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교육이 무엇인지 참 많은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하는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절실함에서 2021년 선생님들과 함께 환경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와 이슈, 정책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환경에는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저희는 생태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회, 경제로 우선적으로 접목할 수 있지만, 저희는 먼저 과학과 사회 과목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고, 현재 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저희들만의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 달여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밤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지역 김해에 알맞은 환경 수업을 다시 고민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김해에서도 굉장히 기후변화를 준비하는 정책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와 연관된 수업들로 내년을 준비하는 11월, 12월을 보내게 된 것, 이것이 올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아 저희들이 100% 만족하는 프로그램 기획은 아니지만,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김해시 내의 학교, 학교 밖 마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12

지식실행

고래숨

고래숨

12
지식
실행

활동명	책과 영화, 비평적 읽기 및 수업자료 연구, 개발
대표자명	이지혜
모임 인원수	10명

‘고래숨’은 인문책방 <생의 한가운데>에서 책과 영화를 함께 보며 감상과 비평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단순히 책, 영화 감상을 넘어 교육, 주거, 청년과 노인, 어린이와 여성, 이주민, 장애, 환경, 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인권을 공부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책과 영화를 통해 인문적 감수성을 키우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시대정신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영화와 연결하여 함께 감상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비판적 영화 읽기’ 방법을 배워 발문을 만들어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제작될 자료집은 이후 다양한 모임 주체와 공유할 계획인데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마을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인문학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려 합니다. 영화와 책, 두 매체를 비판적 리터러시로 감상하고 감상 후 나눈 토론을 통해 다양성을 배우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좋은 민주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래숨

활동 세부 내용

- ◆ 11월 8일
-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책 읽고 토론하기

은유 <있지만 없는 아이들>, 2021 / 진행:박태남

책방에 회원들이 모였다. 책 길잡이는 책방대표 박태남 선생님이 해주었고 책은 미리 읽고 와서 각자 질문을 뽑아 왔다. 첫 번째 토론 책은 은유 저자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인터뷰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삶을 담은 책인데 이주 아동과 인권변호사, 이주민 인권활동가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미등록 체류자, 이주 노동자, 난민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어보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에 관한 질문들을 놓고 토론했다. 더불어 미등록 장기 이주 아동이 처한 현실적 고민을 알게 되었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합법화 경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물음을 안겨다 준 시간이었다.



- ◆ 11월 11일
-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말괄량이 빈티와 오카피클럽> / 진행:김상화

책방의 한 공간인, 아늑한 방구석에서 2019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작<말괄량이 빈티와 오카피클럽>을 감상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김상화 집행위원장이 영화 소개와 함께 영화감독과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 11월 11일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해 주셨고 영화 감상 후, 감상 포인트와 함께 각자 느낀 소감을 공유했다. 콩고 난민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의 삶,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1차시에 읽은 책과 주제가 이어지는 영화라 책과 영화를 함께 두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11월 15일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책 읽고 토론하기 서경식<다시, 일본을 생각한다>,2021 / 진행:박태남

우리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는 일본의 '애매함'과 일본의 리버럴파가 그 애매함에 동조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비판하는 책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오랜 차별의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지식인 사회나 정치적 입장이 보수화되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웠다. 한국의 성노예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에 갇힌 시각을 넓히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이웃나라 일본의 변화 없이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또한 책을 나누며 일본 내 조선인 학교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값진 시간이다.



◆ 11월 18일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고릴라 별> / 진행:김상화

스웨덴 애니메이션 <고릴라 별>을 보았다. <고릴라 별>은 한국계 감독 린다 함박이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원작은 <나, 고릴라 그리고 원숭이별>이다. 고아원에 사는 요나가 어느 날, 고릴라에게 입양되면서 벌어지는 아기자기한 모험 이야기다. 회원들은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를 삶과 연결시키며 다양한 해석을 했다. 고릴라의 개방적인 교육 방식과 비교하면서, 완전히 다른 타자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해, 왜 ‘고릴라’인지, ‘가족’은 어떠한지 등, 고릴라를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상징하는 바와 의미있는 대사가 많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였다.



◆ 11월 22일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책 읽고 토론하기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 진행:박태남

비소설 두 권에 이어 5차시는 소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SF 영화와 괴물 영화에 준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작가 메리 셸리의 고전을 읽어본 후, 질문을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소설이라 읽는 즐거움도 컸지만, 여러 문제의식이 녹아있는 작품이라 이야깃거리가 많은 작품이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을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나누었다. ‘차별’과 ‘편견’, ‘혐오’에 대한 주제와 이어지면서 과연 ‘괴물’은 누구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깊은 물음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 11월 25일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감독과의 대화 다큐<차별> / 진행:김상화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2021)에 상영된 <차별>의 김지운 감독을 초청했다. <차별>은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상급식지원 제외 소송 투쟁을 다룬 다큐다. '차별'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재일조선인 학생들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영화다. 이날은 미국에서 김해로 홀로 여행 온 재미교포 한 분이 참여하였다. 재일교포와 재미교포, 디아스포라로 사는 이민자의 삶을 영화로, 직접 생생한 경험으로 감상과 질문이 오고 간 깊이 있는 시간이었고 영화를 만든 감독과 직접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 좋았다.



◆ 11월 29일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공룡을 쫓는 내 동생>(2019) / 진행:김상화

다운증후군이 있는 동생 지오를 통해 성숙해가는 형 잭의 성장담과 지오를 편견 없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특별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이탈리아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장애'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11월 30일
◆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고릴라 별> / 진행: 박태남

책과 영화 공부모임 마지막 수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는 애니메이션 <고릴라별>을 보여줬고 영화 감상 후 아이들이 직접 만든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아이들은 어른이 보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해내는 세심한 관찰력과 호기심이 많았고 아이의 시선으로 주인공 요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듯 했다. 상업적 영화가 아닌 유럽 영화라 낯설었을 텐데 재미있게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활동 후기 및 추후 계획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과정은 타인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몰랐던 세계를 책과 영화를 통해 접했고 회원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인식의 확장과 함께 공부에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와 책을 선택하여 책방에서 회원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고, 전문가를 통해 책과 영화인문학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책과 영화를 함께 보며 감상 나누는 수업을 이어나갈 생각인데 감독과의 대화나 관객영화제 같은 소소한 문화 이벤트 기획과 더불어 차후에는 영화비평, 책비평 글쓰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2021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민R&D'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 지원사업

발행일	2022. 03.
발행인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발행처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김해문화도시센터
기획	시민문화파트 서지은
진행	시민문화파트 서지은 신유진 이아름
편집	시민문화파트 신유진
홈페이지	문화도시김해.kr
문의	055.339.2042
디자인	디자인니즈 T. 055.255.5660

* 본 '시민 R&D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모임> 지원사업'은
202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김해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본 자료집의 모든 권리는 김해문화도시센터에 있으며 본 센터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